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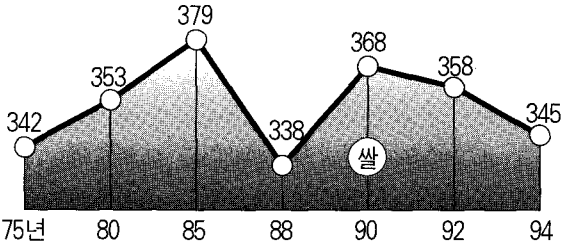


# “21세기 식량재난이 다가온다?”

곡물수요 느는데 작황은 악화  
식량무기화 대비 총체적 대책 절실



1인당 곡물생산량의 변천(단위:kg)



지난 25년간 세계인구는 약 1.42배, 곡물생산량은 약 1.41배로 각각 늘어나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곡물생산의 신장률이 둔화되면서 1인당 생산량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인구 57억 1천6백만 명중 생명유지에 필요한 하루 1천 5백cal 이상을 섭취하지 못하는 인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8억이나 된다.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을 포함하면 빈곤인구는 95년말 기준으로 15억 6천4백만명에 이르러 전체 세계인구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세계의 식량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런 현실로 말미암아 빈곤인구를 영양부족에서 해방시키기는 커녕 그동안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났던 이들에게 다시 굶주리게 할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어두운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21세기 세계는 기아의 시대를 맞게 된다」 「대 기근이 올 것」이라는 극단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세계인구 해마다 9천4백만명씩 증가 인구증가 필연적으로 식량부족 초래**

농업전문가들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식량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정작 식량생산의 신장률은 점차 하강추세에 있어 조만간 식량수급이 균형을 잃을 것이란 사실을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내세운다.

지난 수년동안 기후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잦아 세계유수 곡창지대의 작황이 크게 나빠진 점도 식량위기를 부채질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근대의 영국 인구학자 맬서스는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식량부족을 초래한다』고 일찍이 예언한 바 있다. 식량위기의 최대주범인 인구폭발은 가히 위협적이다. 최근 수년동안 세계인구는 해마다 약 9천4백만 명씩 늘어났다. 한 해에 멕시코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50년뒤 세계

인구는 1백억에 육박하는데 인구증가분의 98%는 개발도상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인구점유율은 현재의 5분의 1에서 50년후에는 8분의 1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세기 중엽에야 10억을 겨우 넘어선 세계인구는 20세기 들어 근대적 의료제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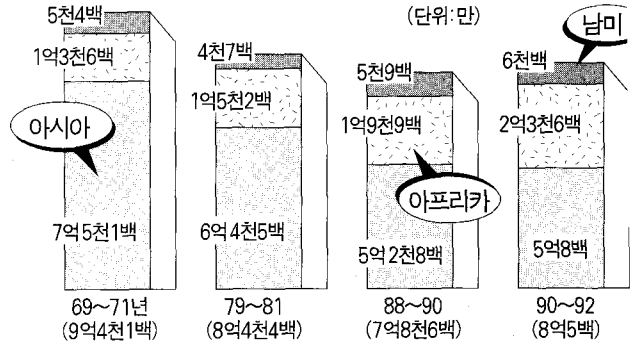
널리 보급되면서 사망률이 낮아져 연평균 증가율이 2%를 웃돌게 됐다. 현재의 증가율은 1.6%이지만 유엔의 94추계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이 0.5% 정도 하락한다 해도 2050년에는 98억에 이른다.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78억으로 억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1백25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잡은 천재지변에 곡창지대 작황악화 곡물재고올 급감 곡물가격 천정부지**

지난 수년동안 세계적인 곡물작황의 악화도 식량수급에 현실적인

지역별 영양부족인구 추이( )괄호 안은 총계 (단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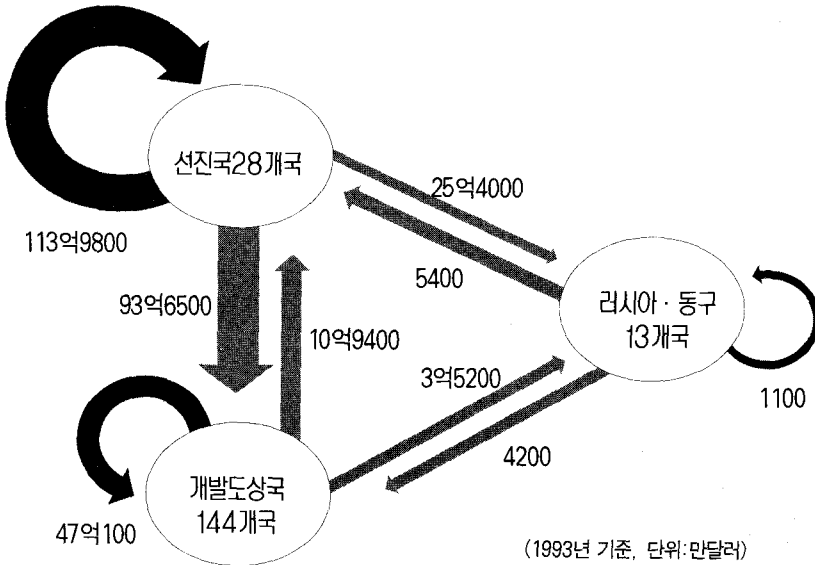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추산에 따르면 만성적인 영양부족 인구는 지난 80년 이래 8억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요곡물의 소비량에 대한 재고율이 급격히 떨어져 밀이 19.2%, 쌀은 11.6%, 사료작물이 11.5%로 지난 30년동안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곡물재고율이 낮은 시점에서 지난해 북반구, 더욱이 세계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미국 중서부의 곡물생산이 흉수와 무더위



국제곡물무역의 흐름



국제곡물거래를 보면 선진국그룹내 수출입이 전체의 38.6%인 1백13억9천8백만달러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그룹으로 수출되는 것은 31.7%인 93억6천5백만달러다.

로 급감해 곡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80년대 들어 88년까지 3~4차례의 대 한발이 엄습했다. 주기상으로 보면 올해는 가뭄이 찾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미국은 물론 주요 곡물수입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곡물의 대규모 생산지인 동시에 소비지인 중국과 구소련지역, 남유럽의 작황도 흉작을 기록하면서 국제식량수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94년까지 매년 5백만~1천만톤을 수출하면서 세계 곡물거래에서 비중이 커졌던 중국이 지난해 상반기 돌던 수출중단과 함께 오히려 4백만톤의 옥수수를 미국에서 들여오게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지난해 세계최대의 곡물생산국 중국은 가뭄과 수재 등 이상기후로 식량수확이 대폭 감소하면서 수출여력을 상실했을뿐 아니라 일부지역에선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식량부족 상태에 빠진 것이 그 배경이다. 당연히 중국의 대량 곡물수입은 국제곡물시장을 압박하는 최대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의 수급불균형을 이유로 언제라도 식량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월드워치연구소 소장인 레스터 브라운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기아의 시대」에서 중국의 식량부족분은 90년 6백만톤이었으나 2030년에는 2억 1천6백만톤에서 최대 3억 7천8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

화된다면 중국은 정국불안의 「뇌관」인 식량의 확보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제곡물시장을 혼란속에 밀어넣어 곡물가를 급등시키는 한편 여타 빈곤국가를 더욱 굶주리게 만든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중국내부에서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난민들이 국외로 대규모 유출돼 한국 일본등 주변국의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세계최대 생산국서 수입국 전략 수량신장세 둔화로 곡물생산에 그림자

밀과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은 96년에 들어서도 수급부족을 배경으로 계속 크게 오르고 있다. 95-96년의 세계곡물 기말재고율은 70년대의 식량위기 때보다도 더 낮아졌다. 옥수수는 부셸(36리터)당 3달러 수준으로 7년마다 값이 올랐고 1년전에 비해 40%나 상승했다. 밀은 30%가 오른 5달러 수준이며 80년이후 15년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콩도 20% 높은 7달러 수준이 됐다.

95년부터의 곡물가격 상승은「흉작이라는 공급면의 요인보다는 수요의 증가가 그 배경이 되고있다」는 사실로도 이제까지의 구조적 문제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그중에서도 식량수출국의 자리를 지켜온 인구 12억의 중국이 1천5백만톤이나 수입한 사실은 「95년은 중국에 있어서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만하다.

지난해에 월드워치연구소는 중

국의 소비증가 등으로 2030년에는 세계에서 5억 2천6백만톤에 달하는 곡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장래의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또 지난 가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은 중국 농업부와 공동연구한 조사에서 유통망 등 각종의 사회간접시설을 정비하더라도 2010년에 가서는 약 6천5백만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말 일본 농림수산성이 계산한 2010년의 세계 식량수급 전망을 보아도 곡물가격은 내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계산은 개도국 등에서의 소비량 증가를 감안하여 ①현재의 단위수량을 계속 늘리는 경우 ②이제껏 단위수량의 신장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의 두가지로 산정했는데 곡물가격은 ①의 경우「보합세가 아닌 약간 강보합세」 ②의 경우「기준년도(92년)의 2배정도까지 상승」한다

고 예상했다.

**구매능력 있어도 식량 확보 어려워진다  
「식량안보시대」 총체적 대책마련 시급**

세계는 과거 40년간 곡물생산은 거의 두배로 늘려왔다. 그 주요요인은 경지 및 관개면적의 확대와 단위수량의 증가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단위수량의 신장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지력약화, 사막화, 또한 환경문제로 인해 제약이 강화되는 등 곡물생산력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 식량상황에 적신호가 켜진 데 대해 각국은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 급증추세를 상쇄할 수 있는 식량증산이 어렵기 때문에 곡물시장의 팽박은 불가피하며 가격의 폭등도 피할 수 없다. 곡물가 등기는 구매능력이 없는 지역

에 대기근을 가져오게 될게 확실해 매년 아사자가 1백만명 단위로 늘어날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분석도 있다.

각국이 식량확보에 뛰어들게 되면서 시장기능이 마비돼 구매능력이 있어도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점치는 이들도 적지않다.

식량자급률이 점차 낮아지는데다 식량난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이라는 불안요소를 안고있는 우리로서도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다가오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농약정보**

전문기관들이 내놓은 세계식량예측

(단위: 100만톤)

	선진국			개발도상국			세계합계		
	생산량	소비량	순수출입량	생산량	소비량	순수출입량	생산량	소비량	순수출입량
일본농림수산성 (2010년)	1,057 1,059	924 826	134 206	1,331 1,141	1,465 1,349	-134 -206	2,388 2,200	2,388 2,200	0 0
FAO (2010년)	1,028	866	162	1,318	1,480	-162	2,346	2,346	0
세계은행 (2010년)	1,045	829	210	1,261	1,459	-210	2,305	2,289	0
IFPRI (2010년)	1,159	980	179	1,211	1,390	-179	2,370	2,370	0
USDA (2005년)	선진국, 개발도상국별로는 비공표						2,121	2,105	-
월드위치 (2030년)	선진국, 개발도상국별로는 비공표						2,149	2,675	-526

세계식량수급 모델의 상단은 현재추이 시나리오, 하단은 생산제약 시나리오

IFPRI(국제식량정책연구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순 수출입량은 순공급량